요 점

(히브리서 8:1-6)

오늘도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는 신자에게 가장 중요하며, 무능한 자를 유능하게 합니다. 예배를 진짜 지속하게 되면 유능하게 됩니다. 눈이 어두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자에게 어디로 갈지 알려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주에 잡혀 있는 자에게 해방을 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운명과 같은 생각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그 생각에서 해방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생각이 잘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고치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합니다.

제목을 요점이라고 했습니다.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7장의 멜기세덱뿐 아니라 히브리서 1장부터 내려오는 말의 요점은 이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새로 읽어보면 메인 포인트는 대제사장입니다. 8장 1절에서 말한 것이 요점이 대제사장이 진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믿습니다. 믿고, 끝입니다. 질문을 바꿔 있냐고 물으면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봤냐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요점이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메시지의 결론은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구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의 결론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제사와 의식을 행합니다. 성소에서는 제사를 늘 행합니다. 지성소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 행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전 안에 모든 기구들 또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메시지는 그리스도 외에 저주에서 나올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피 제사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고,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남은 공간이 뜰입니다. 이사야 56:7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도 와서 허락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행하고, 그리스도를 메시지에 담은 것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 전체의 메시지가 성취된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중요한 것이 준비된 교회에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것이 되고,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장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돼야 합니다. 자녀들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됩니다. 잠언 22:6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렘넌트 운동에 부모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부모님에게도 영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금토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는 아이들이 세상 문화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토일을 통해서 이 언약의 메시지가 들어가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 복음 운동에 대해 개인적으로 깊이 누리는 기도가 있다면 영웅이 되고, 영적 황제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저는 가끔 착각합니다. 나는 진짜 작품 하나 만들지도 모른다. 이미 작품이기도 합니다. 정신에 문제가 왔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에 비하면 작품 정도를 넘어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작품 하나 만들 것이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시면서 응답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 시대라는 말은 말씀의 묵상과 깊은 기도의 누림이 없다면 자신도 지키기 힘든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사탄이 신사적일 수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치가 교회를 핍박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을 막는 유일한 길은 복음 가진 자가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온 힘을 다해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마음이 있느냐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뱀의 대가리를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잡을 언약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조용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내게 들어오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들어온 사람은 절대 중단하지 않습니다. 될 때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힘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힘입니다. 그 힘이 진짜 힘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힘을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필요 없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1:1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답이 이미 났기 때문입니다.

1. 요점

본문 1절을 보면 놀라운 일인데, 이 놀라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 무엇이냐면 이 대제사장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귀합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안에 약속된 것들이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주에서 해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대가리를 깨고, 영적 문제를 깨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상당한 증인들이 이미 있습니다. 치유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살아계시니까. 현실에 지면 증인으로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게서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증거를 보길 원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요점이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으나 한마디로 요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설명해 나갑니다.

첫 번째 설명이 1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 시키시고, 사람을 살리신 분입니다. 모든 영적 문제의 머리를 깨신 것입니다. 24시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참 장막은 보좌를 말합니다. 4절에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5절부터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보이신 것이 하늘의 참 장막입니다. 이것을 본 그대로 땅에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Copy인 것입니다. 그 장막은 참 장막이 아니요, 하늘의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형과 그림자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행하는 제사장도 그림자, 모형의 제사장이지 참 제사장이 아니란 것입니다. 당연히 율법도 성경이 설명합니다. 율법은 영원한 말씀이 아니고 과정으로 주어진 모형의 법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세상에 계셨으면 제사장의 역할을 안 했을 것입니다. 모형의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26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만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세상의 모형 제사장들은 죽기 때문에 반복해서 다시 세워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드리는 제사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으로 드려야 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제사는 단번으로 영원히, 완전히 문제를 끝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땅은 당연히 아니고, 하늘도 높은데, 하늘보다 높으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간단하게 몇 마디로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6-8절에 보면 이 이야기는 안식일 날 주님이 제자들과 지내다가 배고파서 밀밭에서 밀을 먹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꾸짖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1-8 사이에 있습니다. 6절은 그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율법의 결과이고, 최종 결론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율법을 앞서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나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율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큰 이라는 것은 나는 율법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요한복음 5:46에 '모세가 율법을 썼는데, 그게 모두 나를 위해 기록한 것'이라 했습니다. 율법의 결론은 희생 제사이고, 약속의 피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도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없고, 안식일이 나를 지켜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히려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은 안식일을 누리고 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없어질 것이다, 대신 주의 날이 설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 온 그리스도다. 그러는 중에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하셔서 성전도 나를 위해 존재하며, 성전은 나를 행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 7:26 마지막에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점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의 요점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저주를 정복할 수 있고, 지금 나는 내가 뱀의 대가리를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의 요점이라고 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말들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그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더 좋은 언약 위에 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더 좋은 언약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더 좋은 중보자십니다. 율법에 잡힌 게 아닌 이제 복음으로 해방 받은 우리의 좋은 중보자시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증거가 없이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로 인하여 힘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지금도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언약을 잡고 기다려도 현실에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취시키셔서 나를 이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증인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게 내 안에 들어와 진짜 기도 제목이 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입으로만 기도해도 시간표 오면 응답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증인 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언약이 되면 그 사람은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중 하나만 들어와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참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잡고, 하나님 소원 안으로 들어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은 그리스도입니다. 틀린 언약을 잡고 열심히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바른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언약으로 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이것 하나만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당연히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있으면 저절로 인도 받고, 응답 받게 됩니다. 응답이 지속적으로 오면 내가 하는 신앙생활의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만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은 말씀 받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눈이 열리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보이게 되고, 그 순간 고쳐집니다. 그래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에 내 인생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의 반대말은 바보입니다. 저 또한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옛날보다 훨씬 똑똑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 따라 가면 됩니다. 오늘 이것이 요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점이 살아서 내 안에 언약으로 뿌리 내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